

보도시점 2024. 3. 21.(목) 배포 2024. 3. 20.(수)

2024 세계유산 국제회의 개최 -지역 공동체의 세계유산 제도 참여 방안 논의-

외교부는 3.19.(화)~3.20.(수) 간 서울에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ROM) 및 서강대학교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에서 ‘2024 세계유산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Participatory Approaches to World Heritage 2024)’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는 2016년 부터 세계유산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세계유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논의를 주도해 왔으며, 이번 회의는 ‘세계유산에 대한 참여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세계유산 분야 전문가, 주한 세계유산위원국 외교단, 관계 기관 관계자, 대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국제회의 개최 연혁 및 주제

- 제1차('16.11월, 서울) 해석전략의 의미와 중요성
- 제2차('17.11월, 서울) 유산 관리에 있어서 해석전략의 중요성
- 제3차('18.05월, 서울) 세계유산협약 이행 현황과 당면과제
- 제4차('19.05월, 서울) 세계유산 해석을 통한 문화간 화해의 중요성
- 제5차('20.11월, 온라인) 유산해석에 대한 인권적 접근
- 제6차('21.11월, 온라인) 세계유산 해석 관련 원칙과 미래 발전방향
- 제7차('22.12월, 서울) 평화와 화해를 위한 세계유산 해석

이번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전 세계 자연·문화 유산 현장의 다양한 공동체에 대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가 세계유산 등재, 보존 및 관리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논의하였다.

홍석인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세계유산 제도 발전을 위해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확보하고 유산의 과거와 현재를 포괄하는 전체 역사를 반영하려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라자르 아소모(Lazare Eloundou Assomo)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소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이 세계유산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해나가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 지역 공동체와 유산 간 공존과 같은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고려하며 세계유산 제도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1. 행사 프로그램
2. 행사 사진. 끝.

담당 부서	공공문화외교국 유네스코과	책임자	과장	김지영	02-2100-7554
		담당자	행정관	이가혜	02-2100-7556